

# 천경재 CHEONKYUNGJAE

유주현건축사사무소 | JHY Architect & Associates

**유주현**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소학과 권속학자를 졸업했다. 건축사사무소-아틀리에17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2010년에 자신의 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지고 재단에 아카데미의 한국 파트를 이끌고 있다. 작품으로 판교동 522 주택, 돌인동 스퀘어도 하우스, 문종동 103810 주택 등이 있다. 2004년 김태수장학재단의 2011년 장프로에-김중임장학재단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Yu, Jooheon** born 1976 in Seoul, received his Bachelor of Architec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received Bachelor of Sculpture Ar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at Atelier 17 and has run his own office since 2010. He is also a Korea partner of Jacques Ferrier Architecture. He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13th T.S.Kim Architectural Fellowship Foundation 2004 and the winner of Jean Pissoué Scholarship 2011.

**설계:** 유주현건축사사무소(유주현) **설계면적:** 약당부 145㎡, 서울시 세조구 내곡동 1-0065 동로: 당채부지 327.77㎡ **건축면적:** 152.02㎡ **연면적:** 294.04㎡ **교량면적:** 20㎡ **건물높이:** 46.38m **용적률:** 72.37% **구조:**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 철근콘크리트/외벽에 단열재 유주현건축사사무소 **주요:** 2011.08.01 ~ 2012.01.01 **사진:** 신진섭 **실 사용:** 용사신8888 **감리:** 유주현건축사사무소 **설계기간:** 2011.08~2012.01 **공사기간:** 2012.03~2012.11 **공사비:** 680,000,000원 **건축주:** 약당부

지프세당 유주현건축사사무소 | 사진 신진섭

**Architect:** JHY Architect & Associates [Yu, Jooheon] **Design team:** Park, Seungsoo **Location:** 1-0065 Naegdong, Seonggye-gu, Seoul **Use:** Residence **Site area:** 32777㎡ **Building area:** 152.02㎡ **Gross floor area:** 294.04㎡ **Landscaping area:** 20㎡ **Building scope:** B1, 2F **Structure:** RC **Interior team:** Jyuna **Structural team:** Moesung **Mechanical team:** Timetech **Electrical team:** Shinhanjin **Construction:** Homegays Korea **Supervision team:** Jyuna **Design period:** Aug. 2011 - Jan. 2012 **Construction period:** Mar. 2012 - Nov. 2012 **Cost:** 680,000,000KRW **Client:** Park, Yoonghwan **Materials provided by:** JHY Architect & Associates | Photographed by Shin, Kyoungsoo



## 친경재에서, At Cheonkyungjae,

이흥기(서울시립대학교)

Lee, Chungkee (University of Seoul)



Cheonkyungjae is arranged along a central axis of road-pond-entrance and back garden, with a difference in height of at least three metres between the road and the garden.

### 공간적 사나리오를 읽다

친경재는 건축가가 의도한 다소 복잡한 동선과 시선  
에 대한 계산이 엿보인다. 이것이 이 집이 특별한 평  
면과 외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유이다. 건축가는 매우 세세한 형태의 도로 축 전편  
부에서 대문을 지나 난로 위를 밟아지는 밝은 빛을 손  
끼며 뒷마당을 향해도록 시선과 동선을 유도하고 있  
다. 그러나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횡단과 뒷산 풍경  
을 보고 유턴하여 보는 건물의 배면은 매우 이상하게  
만날 일목 정면과 다르게 세세적이고 다소 건조한, 어  
울리지 않는 어색한 표정을 띠고 있다. (이는 이 집의  
단점으로 보아도 된다.) 그러나 이는 현관문을 열  
면 개방되는 남동쪽 수공간과 그 너머로 조망되는 산  
으로 열린 공간의 극적 개방을 일투어 둔 장치임을 바  
로 알게 된다. 현관문이 이어지는 각 실로의 접근은  
계단과 조망을 계산한 모서리 창과 천장 등의 계획으  
로 직렬히 열리고 닫히면서 각 방으로 이어지는 공간  
사나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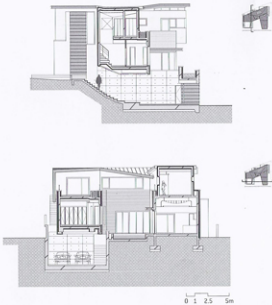
### 다소 어색한 표현들을 보다

친경재에도 다소 어색한 표현들이 있다. - 이는 지극  
히 나의 개인적 디자인 선호임을 전제로 한다 - 각  
공간과 기능이 건축주의 삶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

질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거나 어색한 장식  
을, 이를테면 배면에 과도하게 표현된 티타늄이연판  
재료가 전면의 외벽 재료를 띠어갔으면 어떨을까?  
남쪽 외부공간의 대부문을 차지하는 깊은 수공간이  
변방으로 다닐 수 있는 잔디나 옥채데크였다면 어떨  
까? 단축주택에 어울리지 않는 친청의 과한 장식과  
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설치된 거울이 편한민 거  
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  
을 정리해보자. 건축가가 설명하기 전에는 잘 이해  
하지 않는 장식적 요소들, 이는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채우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덜어내고 이것을 갖는 것이 건축주나 건축가 모두  
에게 필요할 것이다.

### 이흥단은 건축가의 열정을 보다

이흥단은 건강한 집을 보았다. 이 집과 건축에 대한  
건축가의 애정과 열정이 그랬고 이해하고 만족해하  
는 건축주의 생각이 그러했다. 친경재에서 본 집의 건  
강함은 건축가의 주택실체에 대한 경향이 적지 않았  
고 매우 치밀하고 단란한 실무 과정에 반영한 것임  
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이 젊은 건축가의 앞날  
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ection



...and that takes up most of the southernmost space have been replaced by a lawn or wooden deck that could be walked upon barefoot?

### A healthy home

Cheonkungjae is arranged along a central axis of a road-pond-entrance and back garden, with a difference in height of at least three metres between the road and the garden. A living room, main room, study and a children's playroom are arranged from left to right across this axis in a -shaped configuration. Half a level above the entrance hall, living room and dining room is the main room; another half-level up from this is the children's room. In this way, the building ensures an appropriate level of privacy, while ensuring that the character and function of each space is well considered and distributed along lines of flow to create a harmonious appearance in terms of the arrangement, floor-plan and function. The exterior uses bricks and external insulation paint as its principal materials, and exposed concrete as a subsidiary material, giving the building a somewhat unpretentious feel, and yet the interior stands out in its choices of materials and spatial details, surpassing that of the exterior. The consideration that went into the installation of roof eaves and window lintels that protrude further than the outer wall, preventing the walls and windows from getting dirty, also indicates a highly effective approach to overall maintenance. Cheonkungjae thus demonstrates its soundness as a building in terms of layout, floor plan, function, choice of materials and main-

tenance. Where did such a solid design come from? I suddenly found myself wanting to know more about the young architect Yu Ju-hyeon.

### Reading a Spatial Scenario

Cheonkungjae offers a glimpse of complicated architectural calculations, regarding lines of flow and sight on the part of its architect. This is what gives it a complicated feel, in spite of its ordinary floor plan and exterior. The architect has produced lines of flow and vision that lead past the extremely closed frontal elevation, as seen from the road, through to the front gate and up the steps, basking in the sunlight that falls upon them, and back towards the garden. The rear face of the building, however, as seen by visitors that turn 180 degrees after having taken in the sight of the back garden and mountain behind the house, unimaginable from the road below, has a very strange look about it. Unlike the facade, it bears an awkward, unsuitable expression, appearing closed and somewhat dry. Indeed, this appears to be one of the house's shortcomings. We soon learn, however, that this is a device used by the architect, mindful of the extreme openness of the view that unfolds when the front door is ajar and we see the pond to the south-east and the mountain beyond it. The ways leading from each room to the entrance are well-planned in their combinations of steps and corner

windows and skylights placed according to calculations of view, opening and closing where appropriate. They appear to have been composed in the manner of spatial screenplays leading to each room.

### Award Expressions

Cheonkungjae bears some slightly ungainly expressions? I mention these based upon the precondition that they are entirely a reflection of my own personal design tendencies. Despite the fact that each space and function has been expressed in a way entirely sufficient for accommodating the lifestyle of the client, there is some excessive, even awkward, decoration. Could the titanium-zinc panels used to an excessive degree on the rear face of the house, for example, have been omitted in favour of the same external materials used on the front? Could the pond that takes up most of the southeastern space have been replaced by a lawn or wooden deck that could be walked upon bare-foot? Does the excessive ceiling decoration, unsuitable for a standalone house like this, and the mirrors installed to highlight it further, not make a comfortable living room uncomfortable? Carefully, I try to put my thoughts in order. Before the architect gives their design definition, the unreadable decorative elements become factors that inevitably increase the resulting building costs. Clients

and architects alike need to be somewhat sparing and restrained, rather than seeking to fill and express so many things.

### The Enlightened Passion of an Architect

This was the first wholesome house I had seen in a long time. This applies both to the affection and passion of the architect for the house and for architecture itself, as well as to the architect's consideration for the client, who understood this concern and was satisfied with the design. I could guess that the soundness I witnessed at Cheonkungjae came from an abundant experience in residential design and a highly competitive, solid practical experience on the part of the architect. This is what gives me great expectations for the future of this young architect.



The architect has produced lines of flow and vision that lead past the extremely closed frontal elevation, as seen from the road, through to the front gate and up the steps, basking in the sunlight that falls upon them, and back towards the garden.

## 건축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Questions Addressed by an Architect to Himself

윤승현(인테리어건축)

Yoon, Suenghyun (Interkerd 건축)

스페인인 조르지 칠라다(Eduardo Chillida)는 인간과 예술을 극적 대립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65×49×45m의 비취된 공간을 탄다스킨(Sm. Tindaya)에 음악가의 돌출로 조각함으로써 관념의 깊이를 표현했다. 칠라다는 이 작품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 '나는 신을 원한다. 하지만 지금 신이 나의 조각을 원하는지 할 때이다'라는 선언으로 대한 관념적 질문으로 음악적 조각 작품을 정당화했다. 이렇듯 예술가는 작가의 예술관을 한 가지의 주제의 식으로 명쾌하게 드러냄으로써 사회와의 소통을 꿈꾸는 것 같다.

건축을 한 시대와 사회의 표상이라고 정의했을 때 건축기도 예술가와 같이 그러한 명백한 주제에서 속어 극명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꿈꾼다. 하지만 건축은 장소와 환경, 형태와 공간, 프로그램과 기능, 예술적 감성과 기술, 그리고 그를 통해 삶을 영위할 사람들과 인해 각기 다른 하등과 역할을 강요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 가지의 이야기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가는 무분과 함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모든 필요의 조건들을 부무러 해-로 만들

과 동시에 각각의 대상과 인자가 커 기울어 소통할이 없도록 고된 산고를 겪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소통을 위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구룡산공회과 근린공원 사이의 한 집 주거복지 속에 위치한 100여 명의 친원 경부자리에 5명의 가족을 위한 평생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전경사는 건축가에게도 수많은 미묘한 질문들을 던지게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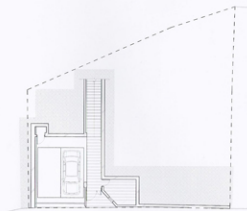
왜 건축주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을 편리한 아파트를 버리고, 주택을 지을 결심을 하였을까? 무슨 전원과 사념적으로 밀려진 자기 다른 자연의 정원은 집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맺어 하는가? 도로와 부차의 3m 경사는 무엇이 되어 하는가? 최우로 배치된 이웃과 마을과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 하는가? 개발의 방향은 무엇이여 하고, 방들의 관계는 이해 하는가? 빛과 공간, 그리고 전망의 조합은 무엇이 되어 하는가? 거주와 삶의 방식은 공간 속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정의와 관

계는 어떻게 구현하- 내부와의 공간을 두르는 재료의 물성과 구법은 건축의 성질에 무엇을 전달하고, 전달받으려 할까? 그리고 모든 건물과 질문은 모든 대채 무엇이 되어 전달할 속에 하-로 융합될 수 있던 말인가? 그렇다면 건축가, 이는 어떤 건축적 주제의식과 방법론을 가져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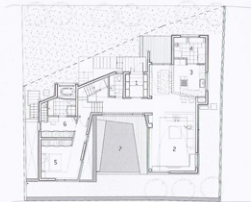
전경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건축가 자신의 답과 결과일 것이다. 고지 속에 드러난 건축가의 세밀한 배려와 디자인 무용이 집 곳곳에 펼쳐진다. 눈높이에 개구부를 둔 대문의 디자인, 길아갈수록 누하진입을 통해 뒷산으로 통성이 이어지고 사할한 자연의 경관을 극적으로 맞이하는 진입방식, 현관의 이중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창대한 원경과의 조우에서 느낄 수 있는 건축가 특유의 시각적 공간적 연출 방식, 중정 공간을 공유해 마주보는 거실과 주민침실 등의 가족 공유실, 계단을 오으며 펼쳐지는 북쪽 구들의 균형 등 등이 그것일 것이다. 또한 한 크지 않은 공간인 예도 소시려 창문과 같은 공간의 시각적 확성성과 거울의 착시효과를 발휘해 공간을 두 배는 인식하게 하는 교묘한 인테리어 등은 주택의 내부공간에 풍성함

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가의 치밀한 열정이 창세된 하나의 결정체로 인식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공간전개의 치밀함, 형태 구성의 완결성, 마을의 단위로 확장된 스케일에 대한 아쉬움은 각각의 요구와 질문을 너무 치밀하게 보니 놓친 부채이한 결과 필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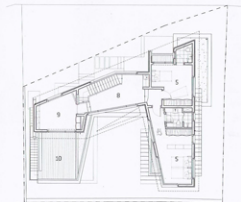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절은 건축가의 성정체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아예 보면 그는 물론 건축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치밀함을 없이는 역시 반성도 부채할 것일모음.....



81 plan



1F plan



2F plan

0 1 2 3 4 5 6m



Features such as the visual expansion of space, through corner windows and the cleverly designed interior, which uses mirrors to make the given space seem twice as great, in spite of the small original dimensions, serving to enrich the interior of the house.

Using a dramatic contrast in order to demonstrate how small humans really are, Spanish sculptor Eduardo Chillida has carved an empty space measuring 65 x 49 x 45m inside Mt. Tindag, expressing the monumental spectacle of conceptual depth. Chillida justifies his sculpture by asking himself the essential question, 'I want the mountain, but now I must ask myself: Does the mountain want my sculpture?' Artists often dream of communicating with wider society, by suggesting their unique artistic spirit possesses its own distinct consciousness.

If architecture is symbolic of a particular era or society, architects, much like artists, dream of communication within such a clear sense of divided consciousness. Architecture, however, is subjected to the demands that must be met by various solutions and roles, according to place and environment, form and space, programme and function, artistic sensibility and technology, and the people whose lives are meant to be negotiated between these governing elements. Most of these things tell a different story, however, as architects seek to create syntheses that incorporate all demands and conditions by striking a subtle harmony between parts and whole, while undergoing a painful process of acute attention to every subject and factor, to ensure that nothing is excluded. They constantly question themselves to ensure an understanding of all individual subjects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m.

Cheonkyungjae was built to provide a lifelong home for a family of five on a sloping greenfield site, measuring 330m<sup>2</sup> on a residential plot between Guryongsan Park and a local neighborhood park. It must have prompted a large number of diverse questions for its architect.

Why would the family as the client have chosen to reject the convenience of an apartment and decided instead to build a house? How might the green natural space of the site and the various natural views that unfold to the southwest of it be tied in with the space of the house itself? What should become of the three-metre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the road and the top of the sloping site? How might the project relate to the neighbors on each side and to the rest of the neighborhood? What might be the purpose of each room and how may the rooms relate to one another? How may the light, space and views be combined? How might the inhabitants' lifestyles be blended into the space? How might the external and internal spaces be defined and related? What do the materials used to clad the exterior lend to the character of the building in terms of quality and structure? or what are they supposed to lend to it? And can all these conflicts and questions really be brought together and fused to create unity within diversity? If so, how does this alter my own unique consciousness and methodology as an architect?

Cheonkyungjae is probably the result of the architect's own unique study of these questions. The

detailed consideration and design struggles that have emerged from his hard efforts are visible in various parts of the house; the design of the front gate, with its opening at eye level; the way in to the grounds – with its sense of depth as it leads through to the mountain behind and dramatically presents refreshing views of the natural scenery; the architect's special way of connecting aesthetics and space that becomes tangible when we encounter the majestic view into the distance, upon opening the double doors of the entrance hall; the understanding of shared family space demonstrated by the way the living space and master bedroom face each other across a shared central courtyard; the view onto the nearby hill to the north that unfolds upon climbing the steps. Features such as the visual expansion of space, through corner windows and the cleverly designed interior, which uses mirrors to make the given space seem twice as great, in spite of the small original dimensions, serving to enrich the interior of the house. It is a shame, however, that this intense enthusiasm on the part of the architect has not been brought together into a refined, crystallized whole. These regrets, when it comes to detailed spatial development, complete formal composition or scale extended to the level of the neighborhood, are probably an inevitable result of taking on each individual demand and question with too much intensity.

However, I want to ascribe these things to the

growing pains of a young architect. From another angle, they could in fact be regarded as the rights of a young architect. And without such creative intensity, there could be no reflection...